

주말과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와 내 일이야 광음(光陰)을 헤어 보니
 반생(半生)이 채 못 되어 육륙(穴穴)에 돌이 없네
 이왕(已往) 일 생각하고 즉금(卽今) 일 헤아리니
 번복(飜覆)도 측량(測量) 없다 승침(昇沈)¹⁾도 하도 할
 샤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아무리 내 일이나 내 역시 내 몰라라
 장우단탄(長呼短歎) 절로 나니 도중상감(島中傷感)²⁾ 뿐
 이로다
 부모 생아(父母生兒)하오실 제 죽은 나를 나오시니
 부귀공명(富貴功名) 하려던지 절도고생(絶島苦生) 하려
 던지
 천명(天命)이 기압던지 선방(仙方)으로 시험한지
 일주야 죽은 아해 홀연히 살아나네
 평생 길흉(吉凶) 점복(占卜)할 제 수부강녕(壽富康寧)
 가졌으니
 귀양 간 적 있었으며 이별 순돌 있었으랴
 (중략)
 내 형상 가련하다 그려 내어 보고지고
 이 정의 깊은 정(情)을 만에 하나 읊기시면
 오늘날 이 고생은 몽중사(夢中事)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척서(尺書)도 못 전하니
 초수오산(策水契山)³⁾ 천만 첩(千萬量)에 내 그림을 누
 전하리
 사랑읍다 이 별이야 얼었던 몸 녹는구나
 백 년(百年) 골 쏘이온들 싫다야 하라마는
 어이한 조각구름 이따금 그늘지니
 찬바람 지나칠 제 별을 가려 아쳐롭다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셀꼬
 이 밤을 지내온 후 오는 밤을 어찌하리
 잠이라 없거들랑 밤이나 짜르거나
 하고 한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운 이 생각하고 살뜰히 애 썩일 제
 목숨이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 만물(人間萬物) 생김 중에 날날이 헤어 보니
 모질고 단단한 이 날 밖에 또 있는가
 심산(深山) 중 백악호(白惡虎)⁴⁾가 모질기 날 같으며
 독 깨치는 철몽둥이 단단하기 날 같으랴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굵기를 뚫어
 고모 창자 세살 창자 완자 창을 갖추 내어

이같이 답답할 제 여단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어휘 풀이] 1) 승침 : 오르고 내림, 즉 인생의 기복. 2) 도
 중상감 : 섬, 즉 유배지에서 느끼는 슬픈 감회. 3) 초수오
 산 : 초나라의 강과 오나라의 산. 곧 깊은 강과 높은 산. 4)
 백악호 : 흉악한 흰 호랑이.

(나)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주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¹⁾을 간,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²⁾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
 하며,
 딜옹배기³⁾에 북덕불⁴⁾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쥘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
 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두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머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
 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펴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
 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⁵⁾에 쌀랑쌀랑 싸라늬이 와서 문창을 치기
 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샅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였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어휘 풀이] 1) 샅 :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2) 잔을 붙이었다 : 주인집에 세 들었다. 3) 덜용배기 : 둥글 넓적하고 아가리가 벌어진 작은 질그릇. 4) 복덕불 : 짚이나 풀 따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5) 나죽 손 : 저녁 무렵. 6) 바위 샅 : 바위 옆.

(다)

낮선 곳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34세의 나이로 추자도에 유배를 당한 안조원은 그곳에서 「만언사」를 창작했다. 이 작품에서는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시련을 극복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기를 긍정함으로써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유랑 생활을 하면서 보낸 편지의 형식을 띤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객지를 떠돌다가 머물게 된 어느 셋방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고 있다. 견딜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생에 대해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게 된 결과, 내면의 안정을 되찾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낮선 곳에서의 힘겨운 처지를 견뎌 내는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다.
- ② (나)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대구의 방식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제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풍자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
- ⑤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부각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감탄사로 시행을 시작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 : 특정 시간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 : 동일한 시어로 끝나는 시행을 반복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 시선의 이동을 통해 이상 세계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 <보기>는 (가)의 속편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나누었음직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보소 손님네야 설운 말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無識)하나 이 내 말씀 들어 보소
(중략)

손님 팔자(八字)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번화(繁華)타가 고생한들 저런 고생 매양 할까
요금정옥 경대부와 금지옥엽 귀공자도
절도 고생(絶島苦生) 다 지내고 천은(天磨) 입어
올라가니

이 고생 다 겪은 이 손님뿐이 아니어늘
그대도록 설위하며 저대도록 애를 썩여
귀양살이 애쓰나니 쾌히 죽어 모르자니
망해투사(望海投死) 하려는가 불식야사(不食糲死)
하려는가
자문야사(自刎而死) 하려는가 음독야사(飲毒而死)
하려는가
설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半)이 되고
귀양 가서 다 죽으면 도중적객(島中論客) 뉘 있을
까

- 안조원, <만언사답>

- ① (가)의 화자 : 가련한 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답답한 이 심정을 글로 옮겨서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으나 편지조차 전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 ② <보기>의 화자 : 손님, 서러운 말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어찌 안 좋은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귀양을 왔다하여 다 못 견디다면 세상에 유배객이 남

아 있었습니까?

- ③ (가)의 화자 : 내가 예전에 점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 났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양을 오게 되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 ④ <보기>의 화자 : 변화한 삶을 살다가도 고생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지금의 이 고생이 평생을 가지도 않겠지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 ⑤ (가)의 화자 : 하기가 이 고생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나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견뎌 냈던 것처럼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나)의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그 원인을 거둬하여 되새기고 있다.
- ② ‘나’는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다
- ③ ‘나’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머물면서 삶에 대해 고뇌하고 있다.
- ④ ‘나’는 답답한 자세로 자신의 앞날에 대처하리라 마음 먹고 있다.
- ⑤ ‘나’는 상념의 끝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고독감에서 벗어나고 있다.

5. (다)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는 ‘부모 생이’할 당시의 일을 통해 시련을 견뎌 낸 자신의 과거를 나타냄으로써 스스로를 긍정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백악호’의 모진 면모를 통해 화자가 겪은 시련을 나타냄으로써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집’도 가족도 없는 상황을 통해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며 홀로 지내야 하는 형편을 나타냄으로써 화자가 유랑하고 있는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절망의 강도를 나타냄으로써 무기력한 생활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더 크고, 높은 것’을 통해 자신을 움직이는 초월적인 힘을 나타냄으로써 생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국의 천문학자 허셜은 1781년에 토성보다 큰 궤도로 태양을 도는 천체를 발견했다. 이후 많은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일곱 번째 행성인 천왕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 ㉠알려진 천체들 간의 인력을 고려하여 뉴턴의 고전역학에 따라 천왕성의 궤도를 계산했지만, 그 이론적 예측 값이 망원경으로 측정된 천왕성의 궤도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불일치는 천왕성의 궤도 문제라고 불렸다. 뉴턴주의자들은 천문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 고전역학으로 계산한 천왕성의 궤도와 일치하는 측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망원경의 정밀도를 높여 천왕성의 궤도를 반복 측정했는데도 두 값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점차 고전역학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고전역학에 대한 회의론은 프랑스의 천문학자 르베리에에 의해 극복되기 시작했다. 고전역학에 따르면, 어떤 천체 주위에 있는 다른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천체에는 더 큰 인력이 작용한다. 천체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설이 ‘섭동 이론’이다. 르베리에에 이 이론에 근거하여 천왕성의 궤도 바깥에 다른 행성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그 미지의 행성이 천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천왕성의 실제 궤도가 이전까지의 계산 결과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 하나가 존재한다고 가정된 뒤 다시 고전역학에 따라 계산을 하면, 천왕성의 궤도는 실제 측정 결과와 일치할 가능성이 충분 했다.

그러나 가상의 행성이 실재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고전역학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다. 1846년에 르베리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자신이 예언한 행성이 베를린 천문대의 천문학자 갈레에 의해서 관측된 것이다. 훗날 해왕성이라고 ㉣불린 이 행성의 실체가 드러나자 고전역학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고, 오히려 고전역학은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이론이라고 인정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공에 힘입어 르베리에에 섭동 이론을 또 다른 천체 문제에 적용했다. 1859년에 그는 수성의 궤도에 대한 관찰 결과가 고전역학의 계산 결과와 다르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수성은 태양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지점이 매년 이동하기 때문에 공전 궤도가 일정하지 않다.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깝게 되

는 지점인 근일점은 100년에 약 574초 정도 이동한다. 이 값은, 주위의 행성들과 태양이 수성의 궤도 운동에 [A]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인 531초와 약 43초 정도 차이가 난다. 르베리에에는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끼치는 해왕성처럼,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끼치는 미지의 행성이 수성 주위에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행성의 이름을 불칸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반복된 측정과 탐사를 통해 불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성의 근일점 운동은 고전역학을 극복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해서 비로소 분명하게 해명되었다.]

6.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천왕성은 허셜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 ② 망원경의 정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높아졌다.
- ③ 영국과 프랑스는 해왕성을 먼저 발견하려고 서로 경쟁하였다.
- ④ 천왕성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수성의 근일점 운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 ⑤ 고전역학에서는 천체들의 질량이 클수록 그 천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커진다고 본다.

7.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르베리에에는 수성 주위에는 미지의 행성이 없다고 확신했다.
- ② 수성의 근일점 운동은 섭동 이론에 의해 해명되지 않았다.
- ③ 불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삼아 예측된 행성이다.
- ④ 아인슈타인은 고전역학으로 43초 차이의 이유를 밝혀냈다.
- ⑤ 수성은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공전한다.

8. <보기>의 입장에 따라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과학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과학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예측 값이 실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측정값과 비교됨으로써 판가름된다. 우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획득된 측정값은 경험적으로 참이다.

이와 같이 측정 값과 이론적 예측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예측 값을 산출하는 과학 이론은 거짓이다. 만일 측정값과 예측 값이 일치하면, 그 예측 값을 유도하는 과학 이론은 ‘잠정적’으로 참이라고 인정받는다. 측정값을 근거로 과학 이론의 참과 거짓을 평가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반증주의’라고 부른다.

- ①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획득한 천왕성 궤도의 측정값은 신뢰할 수 있겠군.
- ② 갈레에 의해서 해왕성이 발견된 이후 천왕성 궤도의 측정값과 예측 값이 일치했기 때문에, 고전역학은 다시 참으로 인정받았겠군.
- ③ 천왕성의 발견 이전까지는 다른 행성들의 궤도 운동에 대한 측정값과 고전역학에 따른 예측 값이 일치했기 때문에, 고전역학은 참이라고 인정받았겠군.
- ④ 해왕성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계산된 천왕성 궤도의 예측 값이 실제 측정값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역학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겠군.
- ⑤ 르베리에가 미지의 행성을 가정하고 산출한 천왕성 궤도의 예측 값과 르베리에 이전 사람들이 계산한 예측 값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고전역학은 참으로 인정받지 못했겠군.

9.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고지(告知)된
- ② ㉡ : 배출(排出)될
- ③ ㉢ : 입증(位證)하지
- ④ ㉣ : 호명(呼名)된
- ⑤ ㉤ : 친밀(親密)하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내가 옷을 **만**하다¹⁾.
- (2) 나는 옷기**만** 했다.

현대 국어의 ‘만’은 의존 명사와 보조사로 모두 쓰이는데 (1)과 같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2)와 같이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1)의 ‘만’은 의존 명사이고 (2)의 ‘만’은 보조사인데, ‘만’의 품사는 앞에 오는 요소의 문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1)과 같이

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② ‘여덟을’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여더틀]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③ ‘술에’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소체]는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④ ‘빛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비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⑤ ‘삿을’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한 후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삭슬]은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3. <보기>의 ‘학습 활동’을 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국어에서는 어떤 체언이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체언에 접미사 ‘-들’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별도의 복수형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때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체언의 복수 표현과 관련된 문법적 특징을 탐구해 보자.

- ㉠ 운동장에 {사람이/사람들이} 많다.
- ㉡ {사람은/*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
- ㉢ {우리가/우리들이} 오늘 청소 당번이야.
- ㉣ {너희는/너희들은} 언제 출발해?
- ㉤ {공부를/공부들을} {부지런히/부지런히들} 해라.
- ㉥ {학생 셋을/학생들 셋을/*학생 셋들을} 만났어
- ※ ‘*’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임을 나타냄.

- ① ㉠을 보니, ‘-들’을 결합시키지 않고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군.
- ② ㉡을 보니, 어떤 종이나 부류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체언에 ‘-들’을 결합할 수 없군.
- ③ ㉢과 ㉣을 보니, 인칭 대명사 ‘우리’와 ‘너희’는 ‘-들’이 결합하지 않으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군.
- ④ ㉤을 보니, ‘-들’은 셀 수 없는 명사와 부사에도 결합할 수 있군.
- ⑤ ㉥을 보니, ‘-들’은 수사에는 결합할 수 없군.

14. <보기>의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에 대응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와 대응하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능동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의 주어와 목적어는 피동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의 부사어와 주어에 각각 대응한다. 그런데 모든 능동문이 피동문과 이러한 대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능동문에 있는 목적격 조사가 이에 대응하는 피동문에 그래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 ① ㉠ : 형이 연필을 빼앗았다.
- ② ㉠ :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
- ③ ㉡ : 고양이가 풀을 뜯는다.
- ④ ㉢ : 그는 아버지를 닮았다.
- ⑤ ㉣ :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정답 및 해설

- 1) ㉠ ㉡ (가)에서 화자는 '가슴'이 터지면 '굶기', 즉 구멍을 뚫어 '고모 창자', '세살 창자', '완자 창' 등 창문을 낸 다음, 가슴이 답답할 때면 여닫고자 한다고 진술했다. 즉 '가슴'에 창문을 낸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해소할 길 없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 (나)에 '갈매나무'라는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의인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이왕 일 생각하고 죽금 일 해아리나',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의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풍자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⑤ (가)는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이별 순둘 있었으랴', '이 밤을 어찌 살고', '오는 밤을 어찌하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2) ㉠ ㉡ ㉢은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 등으로 괴로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던 화자가 절망의 끝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온 초월적 힘을 인지하고 마음 속 '앙금'을 가라앉히게 된다. 따라서 이 시행은 화자가 고개를 들어 시선을 이동함으로써 절망의 늪을 헤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상 세계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은 '어와라'는 감탄사로 시행을 시작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체험과 정서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② ㉢은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낸 대목이다. 화자가 '어찌 살지 두려워하는' '이 밤이 오고', '이 밤이 지난 후에는 다시 또 밤이 온다. 이렇듯 특정 시간인 밤을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외로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③ ㉣은 화자의 괴로움을 강조한 대목이다. '~ 적이며'로 시행을 끝맺고, 이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은 화자의 내면이 차차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앙금이 가라앉는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 3) ㉠ ㉡ (가)의 화자는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 아무리 내 일이나 내 역시 내 몰라라'라면서 남들도 겪을 수 있는 시련인지 자기 혼자만 겪는 시련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 보편화하여 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자기뿐이겠냐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보기>의 화자가 '이 고생 다 겪은 이 손님뿐이 아니어늘'이라면서 (가)의 화자를 위로하고 있다. 또한 (가)의 화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난을 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 ㉣ (가)의 화자는 '내 형상 가련하다 그려 내어 보고지고'라면서 가련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기러기 지난 후에 척서도 못 전하'라면서 다른 이에게 편지조차 전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의 화자는 '이보소 손님네야 설운 말 그만하고'라면서 (가)의 화자에게 말을 건넨 다음, '귀양 가서 다 죽으면 도중적객 뉘 있을까'

- 라고 하면서 (가)의 화자를 위로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평생 길흉 점복할 제 수부강녕 가졌으니 / 귀양 간 적 있었으며 이별 순둘 있었으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귀양을 오게 될 것임을 짐작조차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는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 변화타가 고생한들 저런 고생 매양 할까'라면서 (가)의 화자에게 아무리 팔자가 좋다고 해도 계속 좋을 수는 없으며, 변화하다가 고생하게 되더라도 그 고생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의 화자가 겪고 있는 고생이 평생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다.
- 4) ㉠ ㉡ (나)의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에서 드러나듯 '나는 마음의 슬픔과 어리석음, 즉 괴로움이 차츰 가라앉고 난 다음, '외로운 생각만이 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상념의 끝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고독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 (나)의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이었다'를 통해 '내가 자신의 괴로움과 그 원인을 거둬들이 버거운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또 문밖에 나가 지두 양구 자리에 누워서'를 통해 '내가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방'에 머물고 있음을, 그곳에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한다는 것에서 '내가 삶에 대해 고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갈매나무'는 '눈이 표상하는 외적 시련을 견디고 서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내가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 담담한 자세로 자신의 앞날에 대처하리라 마음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 ㉡ (다)에 따르면 (가)는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작품이라고 했다. (가)에서는 가족들과 떨어져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고독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백악호는 자신의 모질고 단단한 성격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이다. 곧 '심상 중 백악호가 모질기 날 같으며'라고 한 것은 자신이 백악호보다 더 모진 심성을 지니고 있음을, 따라서 혹독한 유배 생활도 잘 견딜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진술인 것이다. 따라서 '백악호의 모진 면모를 통해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부각한다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다)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시련을 극복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기를 긍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에서는 '부모 생야할 당시 '일주야 죽은 아해 홀연히 살아'난 경험, 즉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신이 일주일 만에 살아난 당시의 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련을 견뎌 낸 자신의 과거를 나타냄으로써 스스로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③ (다)에 따르면 (나)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보낸 편지 형식의 시라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는 '집'도, '아내', '살뜰한 부모', '동생'과 같은 가족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때문에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며 홀로 지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유랑하는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다)에 따르면 (나)는 자신의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절망을 토로하기도 하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다가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절망의 강도를 나타냄으로써 무기력한 생활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다)에 따르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생에 대해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는 '고개를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이끌어 가는 '더 크고, 높은 것', 즉

초월적 힘을 인지하면서 생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6) ㉠ ㉡ [지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영국의 천문학자 허셜은 천왕성의 존재를 확인했고, 프랑스의 천 문학자 르베리에에 이 천왕성에 대한 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왕성의 존재를 가정했다. 그리고 해왕성을 직접 발견한 갈레는 독일의 천문학자였다. 지문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해왕성을 먼저 관측하기 위해서 경쟁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서로 다른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내용만 파악 가능하다.
- 7) ㉠ ㉡ [지문의 중요 부분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는 르베리에에 의해서 최초로 알려졌고, 그는 이 문제를 섭동 이론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이론에 의해 가정된 미지의 행성 불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에 일반 상대성이론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답풀이] ㉠ 르베리에에는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칸이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 불칸은 고전역학 테두리에서 도입된 섭동 이론으로부터 예측 된 행성이다. ㉢ 아인슈타인은 고전역학이 아닌 자신의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수성의 근일점 문제를 해결했다. ㉣ 수성이 태양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지점은 매년 이동한다.
- 8) ㉠ ㉡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지문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보기>에 나타난 반증주의는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론적 예측값과 관찰된 측정값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입장 중 하나이다. 두 값이 서로 일치하면 이론은 '잠정적인 참으로 인정받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거짓으로 판정되어 폐기된다. 이 입장은 인식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론 선택의 기준이 바로 관찰된 측정값이라고 전제한다. 르베리에가 섭동 이론을 도입하여 계산한 값은 이론적 예측 값이기 때문에 고전역학 이 참인지를 판가름하려면 이 예측 값이 측정값과 비교되어야 한다. 그러나 ㉤는 측정값 없이 서로 다른 두 예측 값끼리 비교되어 이론의 참, 거짓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반증주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 9) ㉠ ㉡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보이지'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의 뜻을 담은 '입증(立證)하지'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고지(告知) : 계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 배출(排出) :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 호명(呼名) : 이름을 부름. ㉤ 친밀(親密) :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
- 10) ㉠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만'의 용법] 현대 국어에서 '한정'을 나타내는 '만'은 보조사로 쓰이고, 중세 국어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만'과 '한정'을 나타내는 '만'은 모두 명사로 쓰이므로 현대 국어에서 '한정'을 나타내는 '만'은 중세 국어에서 '정도'를 나타냈던 '만'과 문법적 성격이 유사하지 않다. 다만, 중세 국어에서 '한정'을 나타냈던 '만'이 문법화하여 현대 국어에서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이 된 것임을 지문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지문의 1문단에서 현대 국어의 '만'은 의존 명사와 보조사로 모두 쓰인다고 하였고, 그 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지문의 2문단에서 '만'은 부사격 조사 앞이나 뒤에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로만'도 가능하고 '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현대 국어의 '만'은 명사의 성격과 조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세 국어의 '만'은 (3)의 ㄱ, ㄴ에서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만'과 '한정'을 나타내는 '만'이 모두 '-(으)ㄴ'만과 같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었는데, 이 중 (3)의 ㄱ은 현대 국어에서도 '-(으)ㄴ'만과 같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었는데, 이 중 (3)의 ㄴ은 현대 국어에서도 '-(으)ㄴ'만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3)의 ㄴ은 현대 국어에서 '-(으)ㄴ'만으로 해석하면 어색하고 '-기만'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기'라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만'을 붙여 조사적 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도'를 나타내는 '만'은 문법화를 겪지 않아 현대 국어에서도 의존 명사로 쓰이고 있지만, '한정'을 나타내는 '만'은 문법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서는 보조사로 쓰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중세 국어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3) ㄱ의 '만'은 현대 국어에서도 그대로 '-(으)ㄴ'만으로 해석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한정'을 나타내는 (3) ㄴ의 '만'은 '-(으)ㄴ'만으로 해석하면 문장이 어색해짐을 알 수 있다. ㉤ 중세 국어의 '만'은 (3)의 ㄱ, ㄴ에서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만'과 '한정'을 나타내는 '만'이 모두 '-(으)ㄴ'만과 같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었으므로 '-(으)ㄴ' 뒤에 오는 '만'은 '정도'와 '한정'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 11) ㉠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만'의 용법] ㉠의 '만'은 부사격 조사 '으로' 앞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은 아니며 보조사로 쓰인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이려면 항상 앞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와야 한다. ㉡ ㉠ ㉡의 '만'은 문장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언인 '잠' 뒤에 결합하였으므로 보조사로 쓰인 것이다. ㉢ ㉠의 '만'은 문장에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왔으므로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이다. ㉣ ㉠의 '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왔으므로 의존 명사이며, 현대 국어 풀이를 볼 때 '-기만'으로 해석되므로 '한정'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의 '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왔으므로 의존 명사이며, 현대 국어 풀이를 볼 때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12) ㉠ ㉡ [연음과 음운 변동] <보기>는 모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앞선 체언의 종성이 연음되는 예이다. ㉣ '빛'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비제]와 같이 연음해야 한다. 그런데 [비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요하고 연음을 해도 나올 수 없는 발음이다. 만약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다면 부정확한 발음이 [비데]가 되었을 것이다. ㉤ ㉠ '무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무르프]와 같이 연음해야 하는데, [무르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하였다. ㉡ '여덟'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여덜]과 같이 연음해야 하는데, [여더름]의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하였다. ㉢ '술'에는 '술'의 뒤에 온 조사가 '에'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바로 연음하여 [소테]로 발음해야 한다. [소체]는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음하여 부정확한 발음이 된 것이다. ㉤ '삿'은 연음을 한 후 된소리되기를 적용한 [삿술]이 정확한 발음이다. [삿술]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지 않은 발음이다.
- 13) ㉠ ㉡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 ㉠에서 1인칭의 복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인칭 대명사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에 '-들이' 추가로 결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2인칭의 복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인칭 대명사 '너희'가 사용되고, '너희'에 '-들'이 결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칭과 2인칭의 경우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별도의 복수 인칭 대명사 '우리'와 '너희'가 사용될 수 있고, '우리'와 '너희'에 추가로 '-들이' 결합할 수 있다. ㉢ ㉠ ㉡에서 '사람'이 쓰인 경우와 '사람들이'가 쓰인 경우 모두 문장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들이' 결합하지 않아도 복수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사람'은 어떤 종이나 부류 전체를 가리키는 총칭적 표현에 해당하는데, 이때에는 '-들이'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은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뜻으로 이때에는 '사람'에 '-들이' 결합할 수 있다. ④ ㉢의 '공부'는 셀 수 없는 대상인데, ㉢에서 셀 수 없는 대상에도 '-들이'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 부사 '가지런하'에도 '-들이'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명사 '학생'에는 '-들이' 결합할 수 있지만 수사 '셋'에는 '-들이'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14) ㉠ ④ [능동문과 피동문] '그는 아버지를 닮았다.'를 역지로 피동문을 만들어 보면, '아버지가 그에 의해 닮아졌다.'가 되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비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능동문의 목적어 '아버지'를은 피동문의 주어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① '형이 연필을 빼앗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형에게 연필을 빼앗겼다.'가 되는데, 이때 능동문의 주어인 '형'은 피동문의 부사어 '형에게'에 대응하므로 ①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에는 대응하는 피동문에 '연필'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영희가 철수에게 불렀다.'가 되는데, 이때 능동문의 주어인 '철수가' 피동문의 부사어 '철수에게'에 대응하므로 ②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고양이가 풀을 뜯는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풀이 고양이에게 뜯긴다.'가 되는데 능동문의 목적어인 '풀'이 피동문의 주어 '풀'에 대응하므로 ③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가 되므로 목적격 조사는 더 이상 문장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⑤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